

2019
한국예술종합학교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사군계집

주최



주관



운영



목차

4 개요

6 타임라인

8 몸으로 만나는 꿈(무용)

26 토요미스테리 극장(연극A)

44 토요미스테리 극장(연극B)





62 프로그램 평가

68 첨부자료

71 예술강사 구성 및 참여인력

72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연혁



개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하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 및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6년 처음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국·공립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운영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예술소양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한예종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르와 형식을 찾는데 힘을 기울였고, 어린이들의 예술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연예술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고 호응이 높았던 연극프로그램과 무용프로그램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한예종 출신의 예술가 중에서 참여자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예술강사를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고,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검토하며 교육 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참여자의 연령대를 분류하고, 지역사회 학교 및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예술극장 내 가장 넓은 연습실을 대관하여, 강사와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움직임에 제약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한예종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토대로 주말을 특별하게 체험하고, 예술적 소양과 함께 사회적인 자신감을 안겨주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 토요미스터리극장(연극) / 몸으로 만나는 꿈(무용)

- 프로그램명 토요미스터리 극장(연극) / 몸으로 만나는 꿈(무용)
- 프로그램기간 2019. 5. 11. ~ 9. 22. 매주 토요일 10:00 ~ 13:00
2019. 6. 8. ~ 7. 28. 매주 토요일 10:00 ~ 13:00
-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예술극장 연습실)
- 내용 어린이 대상의 연극/무용 체험 예술교육프로그램
- 교육대상 초등학생 46명
*연극 32명(초등학생12명/20명, 총 2회), 무용 14명(초등학생14명, 총 1회) 취약계층포함
-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3기수 수업 진행
- 지역사회 문화예술 수혜인원 확대

프로그램	토요미스터리 극장 (연극)	몸으로 만나는 꿈 (무용)
교육형태	체험형 (발표회 포함)	체험형 (발표회 포함)
교육주제	추리소설을 인용한 연극놀이를 통해 철학적인 이야기와 딜레마 상황을 다룸으로써, 표현력 증진을 넘어선 내적 성장 도모	존재 자체가 답이 되는 신체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감각자극 및 움직임을 통한 창의성 발견
교육대상	초등학생 3~6학년	초등학생 4~6학년
교육회차	20회차 (10회차 x 2기수)	10회차 (10회차 x 1기수)
예술강사	백선옥, 차봄, 김건아	김은경, 김성, 손정현



타임라인

4월	프로그램 기획 사업신청 및 업무협약 체결 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사업 담당자 채용 프로그램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렛) 꿈다락 사전 워크숍
5월 11일~7월 7일	토요미스테리 극장(연극A) 교육프로그램 운영
6월 8일~7월 28일	몸으로 만나는 꿈(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7월 13일~9월 22일	토요미스테리 극장(연극B) 교육프로그램 운영
8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중간워크숍
10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실무자와 예술강사들의 후기 간담회
11월	사업 결과 정리 및 결과물 제작(사례집, 영상) 실적·정산보고서 작성
12월	사업비 정산자료 회계법인 제출 및 감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산·실적보고 집행 잔액반납

• 무용 •

몸으로 만나는 꿈



몸으로 만나는 꿈

‘몸으로 만나는 꿈’은 존재 자체가 답이 되는 신체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감각 자극 및 움직임을 통한 창의성 발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일상 속 사물에 접근하였을 때 나타나는 창의적인 반응과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생각 속에만 있던 이미지를 신체 움직임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표현과 소통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만의 표현력을 갖추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닌 자기표현에 초점을 맞춘 수업으로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과 그 걸 바라보고 함께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교육 목표	존재 자체가 답이 되는 신체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감각 자극 및 움직임을 통한 창의성 발견
분야	무용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기간	2019. 6. 8. ~ 7. 28.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극장 소극장연습실)
발표	2019. 7. 28.
예술강사	김은경, 김성, 손정현
참여학생	양진, 박울, 김에서, 신은빈, 최주연, 유지우, 최서연, 윤다경, 이기령, 김지윤, 송색슨, 손지호, 이루미, 박우진



6월 8일

몸으로 만나는 꿈, 오리엔테이션

- 수업소개 및 워밍업

- 건기

(사이사이로 건기, 갑판 위 건기, 모두 연결되기, 포인트 인사,
4가지 레벨 그대로 멈춰라!, 모여라 4명, 눈치게임 1~4)

- 빙고 움직임 만들기

- 쿨다운 (바디튜닝)

아이들의 성향파악을 위해 차분하게 진행 가능한 콘텐츠 위주로 수업하였다.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주춤거리던 아이들이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팀별 지도하였다.

성향 별로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적극적이어서 수업진행에 있어 어려움은 없었고,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걸 즐기는 아이들이 많아서 좋았다. 이는 긍정적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 기획자의 시선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낯선 친구들로 인해 쭈뼛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간식시간 이후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적응력이 빨라 보였다.



나의 공간, 너의 공간, 우리의 공간

- 몸풀기 (Sign Game)
- 포인트 인사
- 공간 감각 깨우기 (자석으로 빈 공간 채우기)
- 나의 공간, 너의 공간, 우리의 공간 (조각상 되기)
- 공통점 빙고
- 쿨다운 (바디튜닝)

지난시간의 결과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팀을 나누어 관찰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이 생겨났지만 공간성에 대한 일부 활동에서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수업 중 계속 장난을 치거나 주의사항을 수긍하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줘야 했었고, 이는 원하는 수업 방식의 방향이 아니었다. 앞으로 주의를 주는 언어나 방법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감각 깨우기

- 워밍업 & 수업내용숙지 및 안전교육
- 어둠 속 기차놀이
- 꼬인 손 풀기
- 감각 깨우기 (시야를 차단한 후 다른 감각을 느껴보기)
- 조각상

안전교육을 잘 따라주었다. 시각을 차단한 활동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으나 서로 협력하여 팀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참여하였다.

예상했던 것처럼 시각을 차단한 순간을 즐기며 다른 감각을 예민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반면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각 파트너들이 잘 이끌어주었다.

체험 자체가 수업의 결과물이 되는 형식의 수업진행이 아이들의 집중도와 참여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 기획자의 시선

학교 사정상 기존 연습실이 아닌 조금 더 작은 연습실에서 수업을 하였는데, 학생들의 집중력도 향상된 것 같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통제하는데 더 수월하게 보였다. 연습실 환경에 따라 수업에 대한 느낌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기 1

- 바디튜닝
- 닌자게임
- 팀 제비뽑기 & 팀 빌딩
- 이구동성 (몸으로 말해요)
- 속담표현하기
- 지난시간 그림을 몸으로 재해석하기

바디튜닝으로 시작하여 아이들의 집중도가 평소보다 좋았다. 정적인 활동에서 뛰어난 집중도를 보여주었고, 동적인 활동(게임)에서는 과한 액션을 보여 추가적인 안전지도를 진행하였다.

표현에 거침없는 아이들과 그 반대인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팀 활동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차이에 대한 이해와 타협을 적절히 잘 이루어냈다.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기 2

- 바디튜닝 & 등 구르기
- 하나로 연결되기
- 5가지 방법 (기어가기, 점프하기, 돌기, 한발로 가기, 굴러가기)
- 사다리타기로 만드는 우리만의 이야기
- 장면 연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결과까지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최대한 강한 답이 아닌 열린 답의 개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룹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빨리 끝내야 한다거나 1등을 해야 한다는 발언과 행동이 있었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지 않도록 활동의 목적을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기 3

- 다함께 왈츠
- 사다리타기로 만드는 우리만의 이야기
- নিজ게임
- 연가시
- 동물원에 가면
- 군무 만들기

게임을 통한 몸열기는 수업콘텐츠를 향한 아이들의 경계심을 무장해제 시킬 정도로 워밍업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왔다. 다소 고정관념에 갇힐 수 있는 동물움직임 소재를 선생님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몸으로 함께 땀 흘리며 부딪혀 온 5주를 보상하듯 경계태세를 풀지 않던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기획자의 시선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긍정적인 태도들이 많이 보였고,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기 4

- 바디튜닝
- 미션 조각상1
- 동물원에 가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한 신체 탐색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느꼈다. 조별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조에 전담으로 강사가 붙어 진행하였다.

각 조별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의견 충돌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었지만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움직임의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함께 만드는 꿈 1

- 몸 열기 (나의 발은 어떻게 생겼을까?)
- 미션 조각상2
- 동물원에 가면
- 나의 꿈은 ○○○입니다.

‘동물원에 가면’활동에서 조별로 애정과 협동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아이들은 동물원 근무 움직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시간을 요청하였으며, 조원들을 챙기고 함께 협의하며 자가 발전을 이루어냈다.

아이들은 꿈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했는데, 함께 친구의 꿈을 장면 연출로 완성시키는 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 기획자의 시선

아이들은 발표회 준비를 즐거워했다. 다 같이 동작을 맞춰보는 것이 좋았던 모양이다. 보여주기 식의 성과물은 지양하지만 아이들이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스스로 만들어 내는 성과물은 언제나 환영한다.



함께 만드는 꿈 2

- 몸 열기 (나의 발은 어떻게 생겼을까?)
- নিজ게임
- 바이러스를 옮겨라!
- 동물원에 가면
- 나의 꿈은 ○○○입니다.

맘껏 웃고 뛰고 소리질러보는 모습을 보며 계획한 게임 활동, 정해진 커리큘럼을 지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제한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주에 활동했던 꿈 이야기를 바꾸고 싶어한 친구가 있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꿈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일주일 보냈던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기뻐다. 또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사람의 꿈을 장면으로 연출해내기 위해 십사일반 아이디어를 내주고 정해진 컨셉에 따라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 움직여주었다.

* 기획자의 시선

결석으로 인해 수업 참여에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이 없도록 앞으로도 출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꿈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 리허설
- 발표회 (우리는 꿈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 참여형 오픈클래스 (바디튜닝, 다함께 왈츠, 어둠 속 사다리타기, 장면연출)
- 수업 마무리

모두가 끝까지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부모님의 입장과 동시에 다소 긴장하거나 평소보다 움직임이 움츠러든 아이가 있기도 하였지만 금세 적응하고 그간 보여준 기량을 맘껏 발휘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문장 만들기 및 장면연출은 진도가 더딘 팀이 있어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세 팀 모두 각각의 색깔이 잘 드러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준비된 쿨다운까지 진행하기에 전반적으로 시간계획에 미흡함이 있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기에 마지막 참여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다.

* 기획자의 시선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했다. 직접 후기작성을 부탁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적어주셔서 놀랐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발표형, 체험형 오픈클래스

일시 2019년 7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극장 중연습실

스래프 명단 강사 김은경, 김성, 손정현

현장진행 손미경, 최지현, 김유리, 김도형, 권새힘, 이효범

촬영 김영덕

오프닝 - 동물원에 가면, 나의 꿈은 ○○○입니다



다함께 왈츠



바디투닝



어둠 속 사다리타기



장면연출 및 발표





Q.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무엇인가요?

• 조각상 수업

이기령 조각상이 돼서 몸을 붙이는 게 재밌었고 친구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양 진 몸으로 가장 많이 표현했던 수업이라 좋았어요.

송색슨 동작을 만들어서 그림 그렸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재밌었어요.



• 동물원에 가면 / 나의 꿈은 000입니다

박우진 군무를 맞추고 대형 이동하는 수업을 제일 하고 싶었고 그걸 해서 좋았어요.

윤다경 직접 안무를 만든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 빙고 움직임 만들기

신은빈 친구들이랑 같이 상의하고 동작을 만드는 게 재밌어서 기억에 남아요.

Q.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몸으로 만나는 꿈' 수업을 통해 배운 무용이란?

김예서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최서연 몸에 대해 알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예요.

유지우 춤으로 단정 짓는 게 아닌 몸을 움직이는 것이예요.

최주연 예전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인터뷰

예술강사 김은경, 김성, 손정현

Q.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김은경 먼저 몸의 확장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표현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뭔가를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말은 되도록 안하려고 했는데, 그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Q.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었나요?

김은경 수업을 경계하고 있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몸이 맞닿고, 땀을 흘리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경계심이 무너지고 많이 친밀해진 것 같아요.

손정현 소극적인 면을 갖고 있던 친구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변하고 수업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김 성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금 거칠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융화되면서 표현이 부드러워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Q.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손정현 “나는 나다”, “나는 선물이다”, “나의 꿈은 세계일주다” 이런 학생들의 말들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김 성 때로는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진 학생 부모님

주말에 늦잠 자는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토요일엔 스스로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최서연 학생 부모님

무용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닌, 내 몸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 생각과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며 몸과 마음이 확장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최주연 학생 부모님

내가 느끼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는 게 사람을 참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은빈 학생 부모님

왕복 3~4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빠지고 싶지 않아 했을 정도로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수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집에서도 표현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송색슨 학생 부모님

수업을 너무 재밌어 했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만큼 열정과 관심을 보였던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었고, 남학생(소수)에게도 맞는 수업이었습니다.

손지호 학생 부모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정교하게 다루는 법을 깨우쳐 나가는 듯합니다. 더불어 친구들과 몸을 부딪히며 놀이를 하면서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 연극 •

토요미스터리 극장

연극A



토요미스터리 극장 (연극A)

‘토요미스터리 극장’은 흥미로운 연극 놀이 활동으로 연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추리소설을 인용한 연극놀이를 통해 철학적인 이야기와 딜레마 상황을 다룸으로써 단순 표현력 증진을 넘어 내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연령과 참여도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과 과제가 참여자들에게 부담 되지 않도록 진행하는데 힘썼습니다. 발표회는 10주간의 수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참여형, 발표형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교육 목표	흥미로운 연극 놀이 활동으로 연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소설의 철학적인 이야기와 딜레마 상황을 연극적으로 다룸으로써 내적 성장 도모
분야	연극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기간	2019. 5. 11. ~ 7. 7.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극장 대연습실)
발표	2019. 7. 7.
예술강사	백선욱, 차봄, 김건아
참여학생	구지유, 윤예준, 안예진, 박주호, 양재희, 안소윤, 이윤정, 임서진, 김다울, 박정수, 김민영, 김희주



마음열기 1

- 이름표 만들기
- 가요대제전게임 (자기소개)
- 꿀떡게임 (이름외우기 활동)
- 줄서기 스펙트럼 (친구에 대해 알아보기)
- ○○○ 꽃이 피었습니다 (동물 표현해보기)
- 몸으로 말해요
- 소감 나누기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서로 친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선생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극 수업 시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려 노력했다.

동물을 설명할 때 이전 자기소개 시간에 들었던 친구의 정보를 활용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친구에 대해 잘 듣고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서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연극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매개체로 친구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도 기쁠 것 같다.



마음열기 2

- 눈치게임, 꼬꼬진화게임, 무궁화꽃 변형게임
- 굴게임 (상상놀이)
- 막대변형 (상상변형게임)
- 어찌고저찌고
- 소감 나누기

맨 처음 수업 공간을 느껴보는 시간부터 점차 보이지 않는걸 보고 상상해서 표현하는 놀이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장면을 함께 구성하고 역할을 맡아 표현해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첫 수업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장면 구성할 때 각자가 의견을 내었고 그대로 반영하여 장면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개개인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기획자의 시선

게임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상황극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예술 강사들이 수업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준비해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오감체험

- 움벌레 게임
- 비행기와 관제탑
- 어둠속으로의 여행
- 소감 나누기

시각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다른 기관으로 상상해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눈을 가리고 외부의 자극과 다른 친구들에게 의지해서 해야 하는 활동인 만큼, 지난 시간보다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향상됨을 느낄 수 있었고 각자가 눈을 가려서 느껴지는 답답함과 함께 다른 기관의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3시간 중 절반이상의 시간을 눈을 가리고 활동하는 만큼 안전상의 염려가 컸지만 다행히도 관계자분들의 도움과 끝까지 잘 따라와 준 학생들 덕분에 무사히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 기획자의 시선

수업을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의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조금 수줍어하고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들 외향적이고 활발한 아이들로 변해있었다.



조별활동을 통한 상황 추리 및 분석

- 그림 보며 장소 만들기
- 마법사의 방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기
- 마법사가 사라지기 전 상황을 상상해서 표현하기

본격적으로 연극에 밀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마법사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제시하여 그 인물이 사라진 이유를 추리해볼 수 있도록 각자가 탐정이 되어 마법사의 방을 살펴보고 조별 활동을 통해 인물 및 상황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답을 정해놓지 않고 아이들이 찾아내는 방식을 따라가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나 마법사의 방에서 힌트를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개개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기 바랬고, 의견 조율 과정에 있어서 단체 활동인 만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길 바랬다.

* 기획자의 시선

단순한 싸움이 아닌 의견충돌로 인한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나쁘지 않았다. 의견조율의 어려움을 아이들이 몸소 느낀 것 같다.



조별활동을 통한 이야기 만들기

- 난장이-마녀-거인 게임
- 인물간 거리 두기
- 조별로 만들어낸 이야기 발표 (도입-전개-결과)

지난 시간 마법사의 방 체험과 토론을 통해 나온 단서들로 오늘은 마법사가 왜 사라졌으며 사라진 후 어디로 갔는지 학생들의 상상력과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상상하는 모든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와 인물의 성격, 인물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성취감과 가능성을 주려하였다. 또한 학생들 모두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다른 조의 결과물을 집중해서 보는 등 연극은 함께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시키고자 하였고 다들 잘 따라와 주었다.

* 기획자의 시선

지난주 미스터리한 인물의 정체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말에 예술 강사들도 당황할 만큼 학생들이 크게 실망했다. 자신들이 추리한 인물과 별개로 존재할 진짜 인물(예술 강사들이 갖고 있을 정답)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정답과 자신의 답을 비교해보길 원했던 것일까?



실제 이야기로 인물 및 상황 추리해보기

- 퀴즈상자, 보물찾기
- 타이타닉 승선 인물 표현해보기
- 스트라우스 부부에 대해 상상력 펼쳐보기

타이타닉을 소재로 하여 유람선 안에 있을 법한 물건들부터 인물들, 실제 탑승객이었던 부부 등 이야기의 퍼즐을 조금씩 맞춰보기 위해 퀴즈상자 및 보물찾기를 몸풀기 게임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물건에 이야기를 붙여넣고 물건이 지닌 가치에 대해서 실제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타이타닉에 있을 법한 인물을 다른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해봄으로써 각 캐릭터가 가진 특성을 파악해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습실은 자연스럽게 유람선 선실이 되었고, 학생들은 그 안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탑승부부인 스트라우스 부부의 사진을 통해 인물들의 관계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시도를 하였다. 이런 활동은 본격적인 연극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기반을 쌓는 과정이다.



실제 이야기로 인물 및 상황 만들기 1

- 인사텔레파시
- 부부의 삶 만들기
- 조별로 주어진 장면 역할 맡아서 발표하기

타이타닉의 실제 탑승객 부부인 스트라우스 부부를 소재로 그들의 첫 만남부터 침몰 후 죽기 전까지의 상황을 추리해보며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실제 사진과 기사를 통해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그들이 겪은 상황을 제시하여 조별로 부부와 그 외 승객 역할을 맡아 발표해보며 시간차에 따른 그들의 행방을 짚어보았다.

특히 부부의 대화를 학생들이 직접 써보고 발표하는 시간은 인물들의 관계를 더 깊이 감 있게 해주었고 그 활동을 기반으로 부부의 만남부터 죽음까지 표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피상적인 상황을 넘어 그들의 사랑과 죽음에 대해 학생들이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 활동을 통해 연극에서 중요한 상황의 전사와 인물 관계, 메시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실제 이야기로 인물 및 상황 만들기 2

- 고양이 쥐 게임
- 호소노 마사부미 기자회견
- 호소노 마사부미 악몽 장면, 역할 발표하기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중 한명인 호소노 마사부미를 선생님들의 상황극을 통해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이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누명을 쓴 인물로 살아생전 악몽에 시달린 인물이다. 누명이라는 사실은 반전으로 두고 학생들이 조별로 그들을 인터뷰하며 그의 악몽의 이유를 파악해보고 발표해봄으로써 그가 느꼈을 불안을 느껴보고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 그의 생존과 죄책감은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걸 공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즉, 상황의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 기획자의 시선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수업에 대해 느끼는 바가 모두 흡사하여 놀라웠다. 예술강사들과 학생들의 합도 굉장히 잘 맞았고, 이 수업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부듯했다.



발표회 준비

- 롤링페이퍼
- 장면 발표 조원 및 역할 분배 연습
- 전체 리허설

지금까지 했던 연극 활동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뽑아 조별발표 2개, 전체 발표 1개를 정해서 동선과 전체적인 그림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따로 대본을 주지 않고 역할만 부여한 뒤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바 역할에 집중하여 능동적으로 역할을 만들어 내고 같이 합을 맞춰가는 모습이 놀라웠다. 부모님이 오시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사실에 다들 더 욕심이 났는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주변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던 시간이었다.



발표회

- 롤링페이퍼
- 발표회 리허설
- 발표회 및 소감 나누기

최종 발표회 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연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맡은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합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초반에 약간의 돌발 상황이 있긴 했지만 무사히 본 공연까지 마칠 수 있었다. 다른 것보다 마지막에 수업에 대한 소감은 나뉘었지만 시간 관계상 사람 대 사람에 대한 소감을 나누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었다. 다음 팀의 경우에는 마지막 발표시간 이후에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더 넉넉히 보낼 수 있도록 일정을 짜야겠다고 생각했다.

* 기획자의 시선

체험, 참여, 발표 형식이 결합된 마지막 수업이었던 만큼 조금 더 세세한 역할 분담이 필요해보였다. 몇 가지 일어난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체험형, 참여형, 발표형 오픈클래스

일시 2019년 7월 7일 오전 11시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극장 대연습실

스래프 명단 강사 백선옥, 차봄, 김건아

현장진행 손미경, 최지현, 김유리, 김도형, 권새힘, 이효범

촬영 김영덕

공연에절편



어쩌고저쩌고



우리 아이들은 언제 사라지고 싶을까? (사라진 아이의 방 체험)



사라진 아이



타이타닉 - 스트라우스 부부 이야기





인터뷰 학생

Q.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토요미스터리 극장'을 통해 알게 된 연극이란?

레 윤 연극이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소 윤 이번 수업을 하고 나서 연극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초코바 저처럼 어린 학생들도 소품을 활용해서 연기를 하면 그게 연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서진 처음에는 연극이 하기 싫었는데 하다보니까 점점 재밌어졌어요.

주 호 조금 더 친숙해진 것 같아요.

Q.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희 주 뭔가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쉬는 시간마다 언니 오빠들이랑 순수하게 놀 수 있어서 놀랐고 신기했어요.

재 희 재미도 있고 감동적인 면도 있어서 좋았어요.

지 유 선생님들과도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안예진 처음보는 친구들과도 스스럼없이 장난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인터뷰 예술강사 - 백선옥, 차봄, 김건아

Q.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백선옥 첫 수업 때 아이들이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시키면 거부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는데, 두 번째 수업부터 몸과 마음이 풀리고 서로 친밀감이 생기니까 알아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냈고, 저희는 그 틀만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차 봄 아이들끼리 토의하거나 쉬는 시간에 서로서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가길 바랬는데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김건아 학년이 다르다보니 다들 나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텐데, 각자 역할을 맡고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연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친밀도가 많이 상승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Q.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백선옥 고마웠던 기억밖에 없네요. 서로 만나서 고마웠고, 열심히 잘 참여해줘서 고마웠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을 만났던 이 기회가 저에게도 빛나는 기회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차 봄 한 명 한 명 모두 연극적인 재능도 많고 수업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서 자신이 얼마나 좋은 끼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아 처음에는 조용했던 친구들이 연습실을 부실 정도로 함께 뛰어다니고 노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좋은 기억으로 저희가 남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호 학생 부모님

전문가가 이끌어주는 예술적인 체험은 일상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른 아이의 반응을 집중하여 살펴보고, 다른 아이의 생각을 역할이나 몸동작으로 표현해보고,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고민하고 다양하게 표현해보도록 하여 아이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시각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김다울 학생 부모님

10주 동안 수업에 대해 물으면 ‘괜찮았어, 재밌었어.’라는 단답형 대답만 해서 사실 어떤 수업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다 끝난 어느 날, 이번에 같이한 친구, 형, 누나들과 다시 모였으면 좋겠다며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아시테지 국제여름 축제>에서 스웨덴 어린이 연극을 보고 나서 “이게 연극이지, 소품들을 정말 잘 사용했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극 수업을 데려간 보람이 있네.” 했더니 “토요미스테리 극장에서 연기를 배운 게 아니라 소품을 갖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상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극을 보는 눈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연극 ·

토요미스터리 극장
연극 B



토요미스터리 극장 (연극B)

‘토요미스터리 극장’은 흥미로운 연극 놀이 활동으로 연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추리소설을 인용한 연극놀이를 통해 철학적인 이야기와 딜레마 상황을 다룸으로써 단순 표현력 증진을 넘어 내적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의 연령과 참여도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과 과제가 참여자들에게 부담 되지 않도록 진행하는데 힘썼습니다. 발표회는 10주간의 수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형, 참여형, 발표형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교육 목표	흥미로운 연극 놀이 활동으로 연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소설의 철학적인 이야기와 딜레마 상황을 연극적으로 다룸으로써 내적 성장 도모
분야	연극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기간	2019. 7. 13. ~ 9. 22.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극장 대연습실)
발표	2019. 9. 22.
예술강사	백선욱, 차봄, 김건아
참여학생	권용현, 손예지, 김아라, 이은재, 서채은, 김서진, 오서윤, 유라연, 유영빈, 유현성, 유서진, 이예나, 최다정, 최수현, 조정원, 조수빈, 전서은, 임다해, 이효빈, 장하준



7월 13일

마음열기 1

- 이름표 만들기
- 째깍땡
- 공연경험조사
- 연극비빔밥
- 인사텔레파시
- 소감나누기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하는 활동인 만큼 주의사항을 더욱 강조하였고,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서로 친해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하였고, 연극 수업 시간이 단순히 연기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려 노력했다.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조리 있게 의견을 얘기했으며, 쉬는 시간에 금방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수업이 더 기대되었다.



마음열기 2

- 눈치게임
- 꼬꼬진화게임
- 무궁화꽃 변형게임
- 어찌고저찌고
- 소감 나누기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보였기에 움직임을 많이 해볼 수 있으면서 연극적인 것과 가까운 활동의 비중을 더 늘리고자 하였다. 확실히 아이들은 설명을 들을 때보다 게임을 진행할 때 집중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친구들과 급격히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어찌고저찌고 활동을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 연극적인 활동에 적응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오히려 빠른 적응력과 적극성으로 기대 이상의 상황을 만들어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한 어찌고저찌고 활동을 즐겼고,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 남은 회 차가 기대되었다.



사라진 아이의 방 탐색

- 꼬꼬게임
- 막대변형게임
- 사라진 아이의 방 탐색
- 캐릭터 분석 및 발표
- 소감 나누기

본격적인 연극 활동에 앞서 주어진 상황을 통해 캐릭터를 분석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추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라진 아이의 방 탐색을 대다수의 학생들이 좋아했고, 그 방에서 얻은 힌트를 통해 인물을 분석하는 시간에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공유할 수 있었다.

초반엔 남녀 섞이는 걸 어색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서로 어우러져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연습한대로 발표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은 가만히 설명을 듣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며 감정을 표출하는 시간에 흥미와 집중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조별활동을 통한 상황 추리 및 분석

- 의자 빼기
- 보물찾기
- 핫 시팅
- 사라진 아이의 전날 밤 만들기
- 장면연습

지난번 함께 체험한 사라진 아이의 방을 토대로 그 아이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아 이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조별로 의견을 나누고 그 아이가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한 장면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몸풀기 활동부터 아이들은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며 참여했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류하며 장면을 만들어냈다. 장면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연출 역할과 배우 역할을 해주었고, 다소 집중하지 않는 학생까지 보듬어 참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연극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협동심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조별활동을 통한 이야기 만들기

- 고양이와 쥐
- 움벌레 게임
- 몸으로 말해요
- 장면연습
- 조별로 만들어낸 이야기 발표 (도입-전개-결과)

약속의 중요성과 감각의 기민한 인지를 위해 관련된 몸풀기 게임을 하였고, 지난 시간 사라진 아이의 방 체험과 토론을 통해 나온 단서들을 가지고 아이가 왜 사라졌으며 사라진 후 어디로 갔는지 학생들의 상상력과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상상하는 모든 소재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와 인물의 성격, 인물 간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성취감과 협동심을 심어주었다. 학생들은 과제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미리 대본을 써오거나 집에서 소품을 챙겨오는 등 기대이상의 준비성을 보여주었고, 저마다 의견을 공유하며 각 조별로 본인들이 준비하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었다.



실제 이야기로 인물 및 상황 만들기 1

- 연예인게임
- 몸으로 속담표현하기
- 퀴즈상자
- 타이타닉 승선 인물 몸으로 표현하기
- 스트라우스 부부 탐색하기
- 조별로 부부의 인상 깊은 순간을 발표하기

도입게임부터 학생들은 굉장한 흥미와 집중력을 보이며 수업을 즐겼다. 본 활동으로 들어가서 타이타닉의 실제 탑승객 부부인 스트라우스 부부를 소재로 사진을 보며 그들의 관계를 추리해보고, 그들에게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해 조별로 자유롭게 상상하며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약간 산만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몸을 움직이고 대사를 할 때는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믿고,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저마다 역할을 정해 내용을 구상하였고, 다소 산만한 학생이 있으면 독려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기획자의 시선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양보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실제 이야기로 인물 및 상황 만들기 2

- 묘비사진 추론
- 부부의 진짜 이야기 장면 연습
- 부챗살대화
- 장면발표
- 해설이 있는 연극 조별 연습 및 발표

지난시간에는 상상으로 스트라우스 부부의 모습을 구현해 보았다면 이번엔 진짜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틀이 주어지니 그 안에서 아이들은 더 깊숙이 몰입하여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시간보다 완성도 있는 발표를 했다.

부챗살대화를 통해 단순히 재미로써 연극놀이가 아닌 감동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해설이 있는 연극에서는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해도를 높여주니 금방 적응하였다. 대부분이 흥미를 느끼며 생각 이상의 발표를 선보였다.



발표회 준비 1

- 리더를 찾아라
- 어찌고저찌고
- 공연예절편
- 팀별 발표

지금까지의 활동 중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활동은 '어찌고저찌고'였다. 제시된 상황에서 대사 없이 '어찌고저찌고'만으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극인데, 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고, 보는 학생들도 흥미를 느끼며 관람함을 알 수 있었다.

'공연예절편'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연관람 매너를 익히게 하는 연극이면서 각각의 애드립이 중요한 극인만큼, 표현에 있어서 자유롭고 활발한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며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팀 준비시간에 서로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였고, 뒤처지는 학생도 설득하며 함께 준비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 기획자의 시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수업이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예술강사들의 바램과 수업이 재밌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부합되어 정말 이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발표회 준비 2

- 타이타닉 장면 연습
- 전체 리허설
- 롤링페이퍼

마지막 발표를 위한 최종 연습을 했다.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선호했던 장면 위주로 동선과 전체적인 그림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에게 따로 대본을 주지 않고 역할만 부여한 뒤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수업이 2주정도 미뤄졌지만 학생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서로서로 도와가며 능동적으로 재치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어 내고 같이 합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 친구들의 빈자리를 같은 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공연 연습만으로도 거의 2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평소보다 더 깊은 집중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었다.

* 기획자의 시선

태풍 링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수업 공백 기간이 생겼다. 이로 인해 수업의 흐름이 끊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학생들은 수업을 정말 재밌게 즐겨주었다. 이 수업이 매우 즐겁고 특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았다.



발표회

- 사전 리허설
- 발표회
- 발표회 소감 나누기

아이들은 막상 부모님들 앞에서 하려니 떨린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이 무색하게도 저마다 무대체질임을 입증하며 순서 하나 틀리는 것 없이 기대 이상의 발표력을 보여주었다. 계속 연습하며 본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의 발표 때도 집중해서 보며 흥이 넘치는 리액션을 보여주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아이들과 소감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평생 했음 좋겠다.” 등 마지막을 맞이한 아쉬움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 선생님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부모님들도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고,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원 없이 받았다.

* 기획자의 시선

갑작스럽게 미뤄진 마지막 수업이었지만 많은 부모님들께서 참관해주셔서 올해 마지막 꿈다락 수업을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무 탈 없이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전시형, 참여형, 발표형 오픈클래스

일시 2019년 9월 22일 오전 10시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예술극장 대연습실, 중연습실

스래프 명단 강사 백선옥, 차봄, 김건아

현장진행 손미경, 최지현, 김유리, 김도형, 권새힘, 이효범

촬영 김영덕



전시 공간 - 수업 활동 한눈에 살펴보기



공연에절편



어쩌고저쩌고



우리 아이들은 언제 사라지고 싶을까?



타이타닉 - 스트라우스 부부 이야기





인터뷰 학생

Q.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토요미스터리 극장'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뚜 빈 연극이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쉬워서 좋았어요.
- 호 피 연극은 혼자서 할 수 없고, 같이 협동하고 마음이 맞아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 다 킹 힘들게 준비해서 연극을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 수 박 처음부터 연극만 하는 줄 알았는데 놀이를 하면서 연극을 만들어가는 게 신기했어요.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려 논 것 같아요.
- 김 치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고 대본을 짜니까 연극이 쉽게 느껴졌어요.



Q.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 무 지 항상 친절하시고, 저희를 잘 봐주시고, 재미있게 수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체 리 재미있는 연극을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 삐 삐 선생님들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어서 감사해요.
- 건축준 그동안 제 맘을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 몬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잘 지도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예술강사 - 백선옥, 차봄, 김건아

Q.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토요미스터리 극장' 수업 어떠셨나요?

백선옥 아이들의 강한 액션과 에너지, 그 왕성함이 굉장히 뿌리 깊게 기억에 남아서 저에게는 '비글미' 넘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차 봄 각자의 색이 굉장히 강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각자 그 강한 색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쁜 색깔을 만드는 무지개처럼 모든 친구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수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건아 아이들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소풍 온 기분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Q.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백선옥 첫 시간에 “선생님 제일 무섭게 생기셨는데 구박 안해서 좋았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솔직한 친구들을 만나서 되게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어갔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차 봄 아이들이 저희 나이가 되어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추억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아이들의 그 기억 속에서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아 10회 차 수업동안 함께 잘 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 개개인의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서채은 학생 보호자

자기가 쓴 대본으로 연극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그 꿈을 실현해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장하준 학생 보호자

몸으로 함께 부딪히며 놀고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 학교와 학원 스케줄에 지친 아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 별로 서로의 생각을 듣고 말하며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권용현 학생 보호자

이 수업을 계기로 아이의 자존감 상승은 물론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수빈 학생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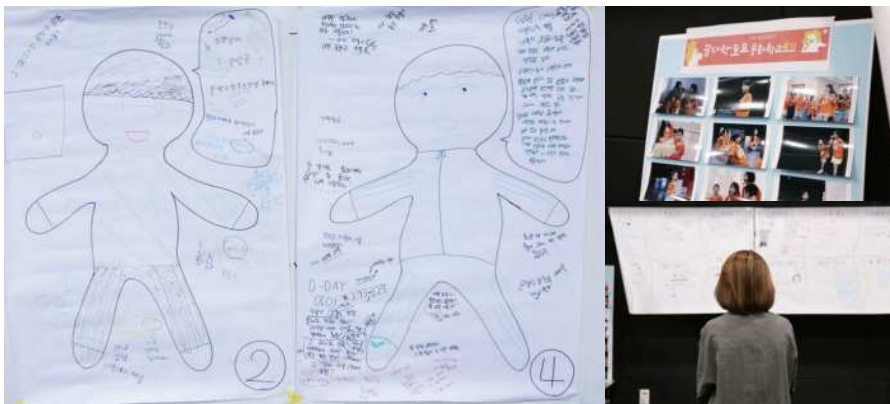
“좋아하는 거니까 일찍 가고 싶어”라고 말해서 정말 애착이 가는 수업이었던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예나 학생 보호자

대본을 외우고 정형화된 틀 속에서 연습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며 활동하는 점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서윤 학생 보호자

연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놀이처럼 쉽고 재밌다는 것을 배우게 된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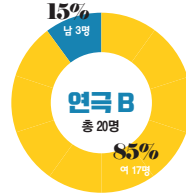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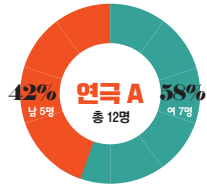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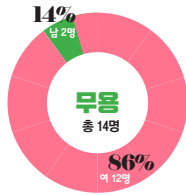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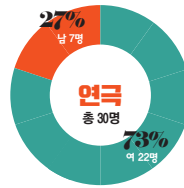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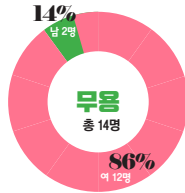
점수현황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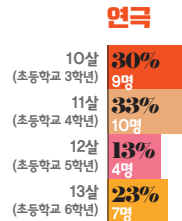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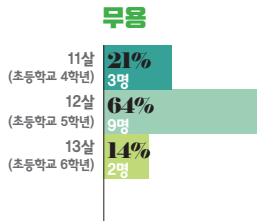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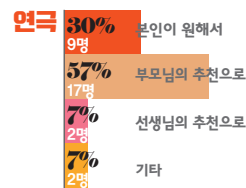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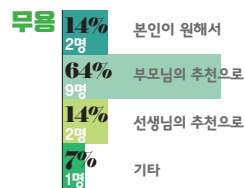
Q.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Q.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Q. 여러분은 어떻게 꿈다락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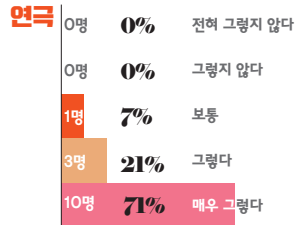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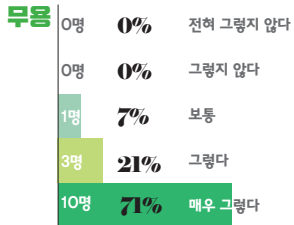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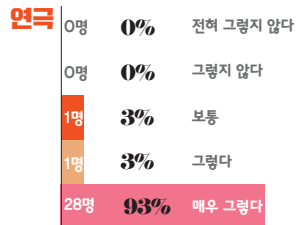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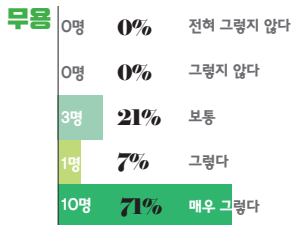
설문조사

Q. 꿈다락토요문화학교를 마친 뒤의 변화를 생각해하시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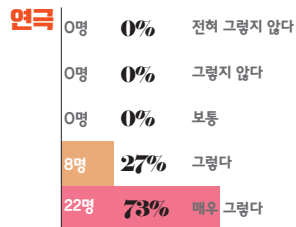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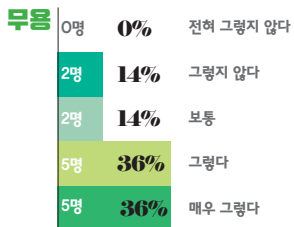
〈무용/연극에 대한 흥미를 느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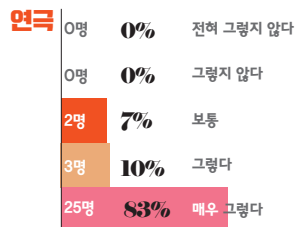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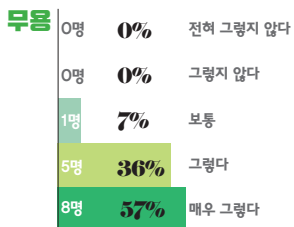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자신감이 생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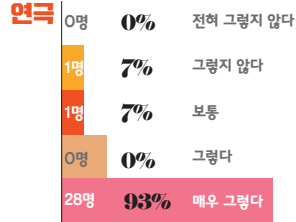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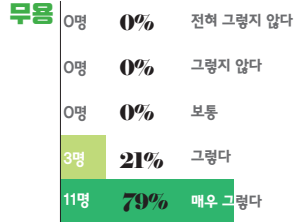


〈배운 내용에 대해 만족하나요?〉





〈다음에 한 번 더 참여해보고 싶나요?〉



〈수업에 대해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무용**
- 게임을 같이해서 더 재미있었다
 - 이 수업이 오래했으면 좋겠어요
 - 자신감을 더 얻었다
 -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셨다
 -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았고, 정답이 없어서 좋았어요
 -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

- 연극**
-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
 -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해주셔서 좋았다
 - 모든 활동이 좋았다
 - 선생님들이 연극을 할 때 계속 격려를 해주셔서 좋았다
 -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좋았다
 - 내 연출 실력이 늘었다
 - 완벽합니다
 - 모르는 친구들과 잘 지내서 좋았다
 - 연기를 평소에 되게 관심있어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선생님께서 친절하셨고 연극수업을 하다가 지루하면 재미있게 해주셔서 좋았다
 - 게임과 추리를 해서 좋았다
 - 자신감을 키워서 좋았다
 - 연극을 게임처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설문조사

〈담당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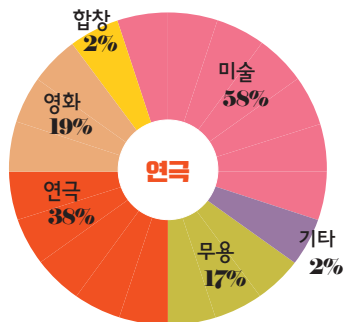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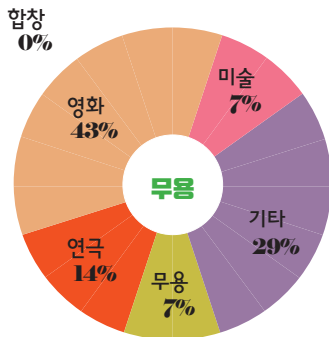
무용

- 그냥 이대로 계속해주세요
- 선생님들 착하시고 예뻐요
-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사랑해요

연극

- 사랑해요
- 항상 감사하고 나중에 또 뵙고 싶어요
-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저희 지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존경, 존중합니다
- 또 하게 되면 연락주세요
-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 항상 재밌고 친절하게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배워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적어주세요. (미술, 합창, 영화, 연극, 무용 등)〉



첨부자료



홍보



기본 포스터



리플렛



웹용 모집안내문



대형현수막 / 가로형 실내 현수막



배너 3종

2019 한국예술종합학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례집



보도자료

한예중,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베리타스 알파 2019. 4. 24.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는 오는 5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공립기관 연계프로그램으로 국립예술대학의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공연예술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강사로 기획단계부터 구성까지 적극 참여하여 대상 중심적이고 소통 지향적인 교육안이 완성되었다.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극과 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질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거주지 인근에서 제

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과 초등학교 3~6학년의 학령기 아동,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연극분야 <토요미스테리극장-사라진 이야기를 찾아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표현력 증진만을 목표로 한 연극 수업이 아닌 흥미로운 추리소설과 영화를 인용하여 삶에 대한 철학과 딜레마를 연극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교육인 무용분야 <몸으로 만나는 꿈>은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인 감각을 깨우고, 창의성을 발견하는 수업이다. 나아가 과정 속에서 표현과 소통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기간은 4월 22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참여자 선발기준은 선착순이되, 사업의 취지상 취약계층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강사 구성 및 주요 참여인력

구분		이름	소속
총괄		김현미	문화예술교육센터장 (음악원 기악과 교수)
예술강사	연극 (A,B)	백선옥	연극원 연극학과
		차 봄	연극원 연극학과
		김건아	연극원 연극학과
	무용	김은경	무용원 창작과
		김 성	무용원 창작과
		손정현	무용원 창작과
촬영 · 영상		김영덕	영상원 영화과
운영진		손미경	문화예술교육센터 팀장
		최지현	문화예술교육센터 직원
		김유리	2019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업 담당자
		김도형	2019꿈다락토요문화학교 코디네이터
		권새힘	2019꿈다락토요문화학교 Staff
		이효범	2019꿈다락토요문화학교 Staff



센터소개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07년 설립과 함께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CAP)'을 운영해왔으며, 2012년에는 교육팀, 2016년에는 뮤지컬창작아카데미가 신설되면서 대외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발전했습니다. 예술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6개원 협력 하에 '찾아가는 예술봉사', '공공기관 문화예술과정',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기획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최고경영자 문화예술과정(CAP)

2007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 및 CAP 운영

2012년 교육팀 신설

대외문화예술교육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확대개편

기획프로그램 2012.10 - 신영철처클래스 Season3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2012.10 - 2012 성북구주말교실

2013년

공공기관 문화예술과정

2013.02-04 2013 국회문화극장
2013.06 2013 홍익학당
2013.09 2013 중앙공무원교육원 문화예술과정
2013.10 2013 개도국아트캠프
2013.11 2013 중앙경찰서 문화예술과정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2013.01-02 2013 청소년예술멘토링
2013.03-12 2013 토요일문화교실
2013.09-12 2013 행복아트캠프

찾아가는 예술봉사

2013.07-08 2013 상상이룸센터 연극프로그램
2013.07-09 2013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극프로그램
2013.07-11 2013 수유초등학교 다문화합창단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운영

2013.10 신영철처클래스 Season4

2014년

공공기관 문화예술과정

2014.01-04 2014 국회최고위 문화예술과정
2014.04 2014 국립외교원 문화예술과정
2014.04-06 2014 중앙공무원교육원 문화예술과정
2014.04-06 2014 국회금요아카데미
2014.09 2014 다문화 이주여성 예술특강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2014.09-12 2014 행복아트캠프

찾아가는 예술봉사

2014.06-08 2014 다솔지역아동센터 미술프로그램
2014.06-08 2014 수유초등학교 다문화합창단 프로그램
2014.06-08 2014 상상이룸센터 연극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운영

2014.11 신영철처클래스 Season5

2015년

공공기관 문화예술과정

2015.02-03 2015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2015.05 2015 국립외교원 문화예술과정
2015.07 2015 중앙공무원교육원 문화예술과정

아트캠프

2015.10 2015 개도국 문화꿈나무 아트캠프

찾아가는 예술봉사

2015.07-09 2015 꿈그림학교
2015.08-11 2015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2016년

공공기관 문화예술과정

2016.02-03 2016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2016.04-11 2016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2016.01-02 2016 겨울방학 행복아트캠프
2016.09-11 2016 행복아트캠프

찾아가는 예술봉사

2016.05-08 2016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2016.09-11 2016 꿈그림학교

뮤지컬창작아카데미 신설

2017년

공공기관 문화예술과정

2017.07 2017 국립외교원 문화예술과정
2017.11-12 2017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2017.09-12 동부교육지원청 '미술로 말하기'
2017.09-12 2017 성북구청과 함께하는 행복아트캠프

찾아가는 예술봉사

2017.05-08 2017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2017.09-12 2017 꿈그림학교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2017.04-12 2017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018년

공공기관 문화예술과정

2018.02-05 2018 국립외교원 외교관 후보자 지정
2018.03-04 2018 국회 의정아카데미 문화예술과정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2018.04-12 2018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찾아가는 예술봉사

2018.06-10 2018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2018.09-12 2018 꿈그림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2018.09-12 2018 동부지원교육청 '창의적 바라보기'
2018.09-12 2018 꿈그림학교 성북

2019년

찾아가는 예술봉사

2019.03-07 2019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2019.06-09 2019 꿈그림학교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2019.04-12 2019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꿈그림학교 예술감상교육

2019.06-11 군포 신흥초등학교(현대무용, 음악 분야)

지자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실

2019.04-07 동부지원교육청 '나도 사진작가',
'신나는 국악교실', '어린이 연극놀이'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2019.01-02 시티문화재단 E.T. Project

2019 한국예술종합학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례집



발행일 2019.12. 06.

발행인 김현미

발행처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 www.karts.ac.kr/main/culture.do

문의 02-746-9785, 9087

기획/구성 손미경 최지현 김유리

촬영 김영덕

디자인 5·55
project

인쇄 타임커뮤니케이션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